

## 치 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절이자 풍성함과 나눔으로 어우러진 청명한 기운속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국대학교 110주년을 기념하고 앞날을 밝히게 되어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학교는 삼보정재는 물론 수많은 사부대중의 정성으로 설립한 자주적이고 민족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기관이기에, 후학에게도 강한 자긍심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천년고찰과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신 선각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기에, 동국대학교는 천년의 지혜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국대학교는 민족 독립과 국권 회복에 앞장섰고, 광복 후에는 민주화와 근대화에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불교적 자각과 지혜의 교육을 통해 배출한 수많은 불교 인제는 오늘날에도 국가의 동량으로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에도 동문 스님들이 여러분 계실 뿐만 아니라, 불교계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0년 동국대학교 역사는 한 대학만의 역사가 아니라 불교의 현대적 자취이자, 우리 사회를 밝혀가는 뜻 깊은 역사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단과 사찰, 그리고 스님들과 불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후원과 후견의 마음을 놓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학교의 발전이 곧 불교의 발전이며 동국대의 미래는 바로 불교의 미래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기를 한결같이 염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장 자광스님과 총장 보광스님께서서는 모두가 종비생 출신이므로 모

교 발전에 대한 애정이 종단의 어느 스님들보다 깊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에 법인과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과 동문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학교 발전에 매진해 주시 것으로 기대하며, 종단과 불자들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명문사학의 원력을 실천해 오신 역대 임원 스님들과 교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며, 함께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안락과 정진으로 동국대의 앞날에 항상 자비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11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